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35장 기도와 경배

『산상설교』 하권 제35장, 인쇄 66~78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9~10

> ❓ 급한 기도 제목이 산더미인데, 왜 주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부터 구하라고 할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주기도의 간구가 여섯 개인지 일곱 개인지보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앞의 세 간구는 모두 '당신의'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는 그 뒤에야 나온다. 그래서 기도는 내 필요는 물론 영혼 구원 같은 거룩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어서 그는 세 간구를 하나씩 푼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죄와 사탄의 나라 때문이다. 그래서 둘째 간구로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 나라가 오면 셋째 간구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결론에서 그는 묻는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현실인가?

📜 절별 정리

📜 1. 간구의 수가 아니라 순서와 비율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 뒤에 여러 간구로 이어진다. 주석가들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따로 떼어 볼지, 앞 간구의 일부로 볼지를 두고 간구가 여섯인지 일곱인지 논쟁해 왔다. 로이드 존스는 이 논쟁이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순서다. 처음 세 간구에는 모두 '당신의

다룬다. 그는 숫자 상징에도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인다. 3은 삼위일체를, 4는 땅과 인간을, 7은 둘을 합친 완전수를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성경의 숫자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공상에 빠질 위험이 있고, 주님이 그런 뜻으로 주기도를 구성하셨다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1. 간구가 6개냐 7개냐는 중대하지 않다
2. 앞 세 간구는 '당신의', 그다음이 '우리'
3. 간구의 절반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4. 숫자 상징은 적절한 관심까지만, 증명은 불가

> **마태복음 6:9**
> 하나님을 부르는 말과 첫 간구로 기도의 출발점을 정한다
>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마태복음 6:10**
> '당신의' 나라와 뜻으로 하나님 중심의 앞 세 간구를 마무리한다
>
>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마태복음 6:11**
> '우리에게'가 처음 나오는 자리로, 순서의 전환점이다
>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요한계시록 4:6**
> 하늘의 네 생물로, 숫자 4를 예로 든 근거다
>
>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중요한 것은 간구의 순서이지 그 수가 아닙니다."

📜 2. 하나님이 먼저: 가장 거룩한 관심보다도 앞서

이 순서에서 원칙이 하나 나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간구로 기도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로이드 존스는 이 원칙이 우리의 소원이 가장 고상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영혼 구원, 설교에 내릴 복, 사랑하는 가족의 회심을 바라는 마음도 첫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 병이나 전쟁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다고까지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칙을 이미 잘 안다고 여기고, 세부적인 기도 요령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자주 범한다. 그의 판단은 정반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 한순간이 이것을 모르고 드린 모든 기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이 원칙을 세 간구로 나누어 가르쳐 주셨다.

1. 내 간구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다
2. 영혼 구원·가족 회심도 첫 자리는 아니다
3. 병·전쟁·재난 앞에서도 순서는 같다
4. “원칙은 다 안다”는 착각이 가장 흔한 실수
5. 바른 시작 한 번이 모든 기도보다 낫다

> **마태복음 6:9**
>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있음을 먼저 의식하게 한다
>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마태복음 6:8**
> 구하기 전에 아시는 아버지이니 내 필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
>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은 신성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흔히 '그 이름'이라고 불렀다. 로이드 존스는 유대인에게 칭찬할 점이 하나 있었다고 본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깊이 느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여겨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다. 구약 전체에 비추어 보면 '이름'은 하나님에 관해 계시된 모든 것, 곧 그분의 속성과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 전부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힘과 능력을 뜻하는 엘·엘로힘, 스스로 계시는 분을 뜻하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이레(준비하심), 라파(고치심), 닛시(깃발), 샬롬(평화), 라아(목자), 치드케누(우리의 의), 삼마(거기 계심)가 그 예다. 주님 자신도 대제사장적 기도(요한복음 17장)에서 보이듯 늘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셨다. 그에 비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에 대한 감각조차 잃어버려 그 이름을 가볍게 쓴다. 로이드 존스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지나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신을 벗어야 한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시편 34편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는 연약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든다는 말처럼 들려 모순 같다. 로이드 존스는 그 뜻을 이렇게 푼다. 하나님의 크심에 무엇을 보태는 것이 아니다. 말과 삶으로 그 크심을 사람들 앞에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간구는 온 세상이 경배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를 바라는 불타는 소원이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도 잠깐 멈추어 이것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경외는 비겁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하고 공손한 두려움이다.

1. '이름'은 하나님에 관해 계시된 모든 것이다
2. 유대인의 경외감은 배우되 지나침은 피한다

4. '높인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5. 경외는 겁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다

출애굽기 3:14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밝힌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5

이름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경외의 그림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요한복음 17:4, 6

주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셨음을 보인다

요한복음 17: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5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시편 34:3

'광대하시다 하라'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출발점임을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히브리서 12:28~29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한다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 4.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

간구들 사이에는 논리적 순서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이 지금 높여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과 마주한다. 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엎드리지 않는가? 답은 죄다. 하나님 나라 말고도 흑암의 나라, 곧 사탄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며 인류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다시 주장하여 이 세상을 그분의 나라로 바꾸시겠다고 계시하셨다. 구약은 이 나라가 올 것을 줄곧 약속했다. 세례 요한과 주님은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다. 주님은 그 역사적 시점에 이 기도를 가르치셨지만, 이 기도는 종말까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해당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곧 그분의 법과 다스리심이다. 이렇게 보면 그 나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이미 임했다. 주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그 증거다. 둘째, 지금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과 삶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 셋째, 장차 온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 간구에는 여러 바람이 담긴다. 내 마음에 그 나라가 넓어지기를, 곧 내가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고 인도받기를 바란다. 다른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기도이기도 하다. 요한계시록 끝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 간구를 완벽하게 표현한다.

1.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원인은 죄와 사탄의 나라다
2.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3. 이미 임했고, 지금 마음에 있고, 장차 온다
4.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포괄적 선교 기도다
5. 재림을 사모하는 기도이기도 하다

> **고린도후서 4:4**
>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신'이 있음을 보인다
>
>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마태복음 3:2**
>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한다
>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 **마태복음 4:17**
> 주님도 같은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신다
>
>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 **마태복음 12:28**
>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근거다
>
>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28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12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요한계시록 11:15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결말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 22:17, 20

“오시옵소서”, 이 간구의 완성된 표현이다

요한계시록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포괄적인 선교기도인 것입니다.”

셋째 간구는 둘째 간구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둘째가 첫째에서 나온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진다. 성경이 하늘을 보여주는 모습은 희미하다. 그래도 하늘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열망하며, 천사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그 순종이 곧 찬양이요 경배다. 이 간구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날에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며, 악은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 위에 비칠 것이다.

1. 나라가 임한 결과가 뜻의 성취다
2.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최고 소원이다
3. 순종 자체가 찬양이고 경배다
4. 완전한 성취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다

> **마태복음 6:10**
> 하늘의 순종을 땅의 기준으로 삼는 간구다
>
>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시편 103:20**
>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 하늘의 순종의 모습이다
>
>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 **베드로후서 3:13**
>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다
>
>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 6. 기도의 시작법: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가

로이드 존스는 앞의 세 간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늘 드려야 할 간구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오해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은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보다 더 커야 한다.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압도적인 갈망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는 이것을 점검 질문으로 바꾼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죄의 모습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인가? 주님은 이 마음을 요한복음 17:25에서 드러내셨다. 주님을 가장 슬프게 한 비극은 세상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세상은 아버지를 가혹한 율법을 준 폭군으로 오해한다.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장래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는 어리석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느냐고 묻는다. 첫 간구가 바르면 나머지 간구는 복으로 뒤따라온다. 주님은 이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1. 앞 세 간구는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2.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 구원보다 앞선다
3. 내 슬픔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점검한다
4. 주님의 비극은 “세상이 아버지를 모름”이었다
5. 이 기도는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의 것이다

> **요한복음 17:25**
> 세상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주님의 탄식이다
>
>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 **요한복음 17:4**
> 주님의 사역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이었음을 보인다
>
>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 **누가복음 11:1**
> “[illegible]

>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 오해와 반론

📖 용어

주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순서와 원칙을 보여 주시려고 가르치신 모범 기도다.

간구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한 마디 한 마디의 요청이다.

거룩히 여김
하나님과 그 이름을 신성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신 일까지 그분에 관해 계시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곧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곧 그분의 법과 다스리심이 실제로 미치는 영역이다.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 드리신 긴 기도다.

경외
비겁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갖는 경건하고 공손한 두려움이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주기도의 핵심은 간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라는 순서다.
- 이름이 높여지기를 구하면 죄의 현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또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된다.
-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지금 마음과 교회에 있으며, 재림 때 완성된다. 그래서 이 간구는 선교 기도이자 재림을 사모하는 기도다.
-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은 내 필요는 물론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보다도 앞서야 한다.
- 주님은 이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남은 일은 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